

콜럼버스 교구 성 대건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

본당주소: Holy Family Church 584 W. Broad St. Columbus, OH 43215
 홈페이지: <http://www.kcolumbus.org>
 주임신부: 김충귀 베드로 신부 (badack@yahoo.co.kr, 614-961-0980)



- * 주일미사 :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 평일미사 : 매주 금요일 오후 5시30분
- * 유아세례 : 매월 둘째 주일 미사 후 * 병자봉성체 : 매월 셋째 주일 미사 후

본당 소식

◆ 전례위원 교육

- 일시: 2월 28일 (토) 오후 4시 30분
- 장소: 사제관

◆ 구역별 가정 면담 및 학생 면담

- 일시: 매주 주일 미사 후 (가정면담)
매주 금요일 미사 후 (학생면담)
- 장소: Parish Center 내 신부님 집무실
- 면담순서:
김제준, 정하상, 황석두, 이호영 구역 (가정)
성가대, 청년성서모임 (학생)
- 지참물: 교적, 교무금 약정서, 신앙현황서
- * 지참물은 구역장을 통해서 배부됩니다.
신부님 면담 전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구역 배정 안내

- * 아직 구역이 배정되지 않은 교우 분들은 성당 뒤편에 마련되어 있는 구역배정용지에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하시고 구역을 배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 ◆ 2008년 Tax 보고를 위해 Contribution Report가 필요한 교우는 정확한 영문 이름과 봉헌하신 총액을 기록하시어 본당 재무담당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친교 준비 봉사자

- 2월 15일: 한석철 2월 22일: 사윤진

◆ 2월 친교 후 정리 봉사: 황석두 구역

◆ 김효임 구역 안내

- * 새로 오신 학생 부부 또는 기존 학생 부부 중 아직 구역에 편성되지 않으신 분은 김효임 구역장, 안유신 레오 형제님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ahnysleo@gmail.com, 614-203-5046)

◆ 학생 제단체 모임 안내

단체	정기모임	담당자 연락처
증거자의 모후	금요일 미사 (5:30) 후 Parish Center	김준식 안셀모 (614-403-2685)
성가대	주일 오전 11시 Parish Center	박영주 마리아 (614-315-8598)
청년성서모임	금요일 저녁 7시 Parish Center	김미정 엘리스 (614-403-2685)

- 학생들은 자신의 신앙 생활을 위하여 꼭 위 단체 중 하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주 일 헌 금	\$613.00
교 무 금	\$810.00
감 사 헌 금	\$200.00

- 교 무 금: 최창배 이석찬 임상순 배상진 양희진
김영숙 조한벽
- 감사헌금: 신현대



성 대건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Korean Catholic Community

연중 제6주일 February 15, 2009



<나병환자를 치유하는 예수님>

에기노 바이너트 (1920-), 칠보, 필름, 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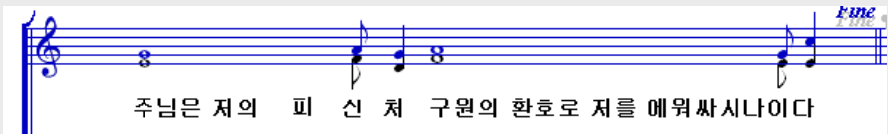
“그는 나병이 가시고 깨끗하게 되었다.”

오늘의 전례

제 1 독서 레위기 13,1-2.44-46

“부정한 사람은 진영 밖에 자리를 잡고 혼자 살아야 한다.”

화답송



제 2 독서 코린토 1서 10,31-11,1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우리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났도다.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도다.

◎ 알렐루야

복음 마르코 1,40-45

“그는 나병이 가시고 깨끗하게 되었다.”



공동체를 위한 묵주기도 50만단 바치기 운동

- 지향1) 공동체 자체 건물 마련을 위한 지향
- 지향2) 공동체안에서 고통중인 신자를 위한 지향
- 지향3) 공동체안에서 성소자 계발을 위한 지향

구역	지난 주일	합계
김제준	125단 1명	4,363단 30명
이호영	124단 1명	16,490단 101명
정하상	단 명	3,485단 77명
황석두	단 명	7,460단 78명
김효임	단 명	1,171단 29명
기타	단 명	130단 3명
미사중	단 명	12,109단 10,315명
	249단 2명	2/22/04 - 2/8/09 (260주)

♣ 총누계: 209,563단 12,732명
묵주기도 목표단수는 매주 5천단입니다.



봉사자 안내

	2월15일	2월22일
해설자	서경환	박귀영
독서/봉헌	이호영 구역	황석두 구역
보편지향 기도	평화의 모후	상지의 옥좌

오늘의 성가

♫ 입당: 59 ♫ 봉헌: 220
♫ 성체: 178 180 ♫ 파견: 461

생명의 말씀

편견과 이기적인 판단 행위가 사라져야만

안병철 베드로 신부 /서울대교구

‘나병이란 사회의 근간을 흔들며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성 자체를 파멸시키는 가장 심각한 질병으로서 죄와 악의 극치를 보여주는 고약한 병이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되어야만 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로부터도 추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상 유대인들은 나병을 죄와 악의 결과로 인식함으로써 나병이라는 육체적인 질병에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의미를 덧칠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나병 환자들은 공동체가 거행하는 경신례에 절대적으로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나병 환자들은 공동체뿐만 아니라 하느님과도 관계도 단절한 채 살아야 하는 고통을 숙명처럼 받아들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께서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도움을 청합니다. 나병 환자의 외침은 예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의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믿음을 갖고 간청하는 나병 환자의 애절한 소망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치유된 그에게 몸이 깨끗해 진 것을 사제에게 가서 확인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나병을 낫게 해주셨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지 무슨 이유로 그러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예수님께서서는 기적이라는 것이 영적인 구원에 대한 열망은 제쳐놓고 세속적인 기대감을 가중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기적을 통해서 사실상 중대한 의미를 전달해주고자 하셨던 것이지요. 마르코 복음서 저자는 기적의 사실을 널리 퍼뜨리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이 자리에 수록해 놓음으로써 <그런 놀라운 기적의 행위를 보여준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라는 사실에 관심을 모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을 읽는 모든 시대의 독자들은 분명한 응답을 하도록 요구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과 고통이 없는 세상은 없을까? 그러한 바람을 품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실질적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는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인해 삶을 위협 받고 있는 이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누가 그들의 고통을 어루만져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옛날 나병 환자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며 치유해 주셨던 예수님께서서는 고통과 시련의 일상 속에서 허덕이는 우리 모두를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러기에 믿는 모든 이들은 이 순간에도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누어 주라는 예수님의 요청을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편협한 사고와 이기적인 욕심 그리고 자의적인 판단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자화상일진대 어찌 우리 사회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악은 질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할 이웃에 대한 성급하고도 이기적인 판단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닐까요?